

2021학년도 1학기 2회고사

2 학년

국 어

과목코드

시 행 일

01

2021년 6월 30일 2교시

- 선택형: 물음에 알맞은 답을 골라 OMR카드의 선택형 답란에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바르게 표기하시오.
- 전체 문항은 선택형 (28)문제이며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녹차는 감기 예방과 피부 건강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녹차를 건강의 제왕으로 만든 데에는 카테킨 성분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카테킨 성분은 감기 바이러스의 활동을 막고 체내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감기 때문에 목이 아프거나 간지러울 때 녹차로 입을 행구면 그러한 증상이 덜해진단다.

또한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외부의 자극으로 붉어진 피부를 가라앉히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 또 항염증 효능도 있어서 여드름이나 피부 염증에 큰 효과가 있다. 피지 조절과 살균 효과도 있어 이마, 턱, 뺨 등의 피지량을 줄여 뽀뽀지 없는 깨끗한 피부를 만든다.

다만, 녹차를 마실 때에는 다음의 몇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질병을 치료하려고 약(한약도 포함됨)을 먹고 있는 사람이라면 녹차를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녹차가 이뇨 작용을 하여 약물이 몸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짧게 만들고 녹차의 성분과 약물의 성분이 결합해서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잠자기 전에는 녹차를 삼가는 것이 좋다. 녹차에 들어 있는 카페인 성분은 각성 효과가 있어 녹차를 마시면 잠이 잘 들지 않는다. 빈혈이 심한 사람도 녹차를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카페인 성분이 철분의 체내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나) 흔히 나쁜 사람을 비난할 때 “개만도 못하다.”라는 표현을 쓴다. 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개와 더불어 생활하다 보면 개가 왜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의아해진다. 사람은 조건을 따져 상대를 차별하지만, 개는 그 주인의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심이 없다. 게다가 개는 주인을 위해 온몸을 던지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주인이 쓰러지자 휴대 전화로 119를 눌러 주인을 구한 개도 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개가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개를 버린다. 아파트로 이사해서, 개가 늙고 병 들어서, 아이를 낳아서, 그냥 귀찮아서 등등의 이유로 이런 일을 벌인다. (중략) 개를 입양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을 늘리는 일과 같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개를 입양하는 것을 너무 쉽게 결정한다. 개의 입양 결정을 쉽게 해서 그런지 버리는 것도 쉽게 한다. 해마다 5만 마리가 넘는 개가 버려진다. 그래서 말씀드린다. “개를 기르지 마세요.”라고. 당장 심심하다고, 애들이 원한다고,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쉽게 입양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개를 자식처럼 기를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마음이 변치 않을 자신이 있다면

개를 입양하라.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개를 입양해서는 안 된다. 이사 가려는 아파트에서 개를 못 기르게 하면 그 아파트 대신 다른 집을 찾을 사람만 개를 기를 자격이 있다.

(다) 도서관 담당 선생님은 특별 활동의 첫날, 도서관이 할 일에 관해 아주 짧고 쉽게 설명해 주었다. “여러분 곁에는 책이 있다. 그 책 가운데 자기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서 읽고 수업이 끝나는 종소리가 울리면 가면 된다.” 그리고 선생님 본인이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서 자리를 잡고 읽는 것으로 시범을 보여 주었다. 나는 책을 고르러 가는 아이들의 뒤를 따라가서 한자로 제목이 적혀 있어서 아이들이 거의 손을 대지 않는 책 가운데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 책은 《한국 고전 문학 전집》 같은 딱딱한 제목 아래 편집된 수십 권의 시리즈 가운데 한 권이었다.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고전 대부분이 그렇듯 책 표지는 사람의 손을 거의 거치지 않아서 깨끗했다. 지은이는 박지원, 내가 처음으로 펴 든 제목은 <허생전>이었다. (중략)

<허생전> 다음에는 <호질>, <양반전>도 있었다. 책이 꽤 두꺼웠으니 박지원의 저작 가운데 상당 부분이 책에 들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책 속에 있는 주인공들은 내가 읽었던 수천 권의 무협지의 주인공과는 달라도 많이 달랐다. 무협지를 읽고 나면 주인공 이름 말고는 기억에 남는 게 없는데 박지원 소설은 주인공이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게 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었더라면 어떻게 했을지 자꾸만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한두 번 씹으면 단맛이 다 빠져 버리는 무협지와는 달리 읽을수록 새로운 맛이 우리나라였다. 보석처럼 단단하고 품위 있는 문장은 아름답기까지 했다. 책을 읽으면서 내 정신세계가 무슨 보약을 먹은 듯이 한층 더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일주일에 단 한 시간, 도서관에서 단 한 권의 책을 거듭 펴서 읽었을 뿐인데도,

중학교 3학년 1학기 특별 활동 시간에 나는 몇백 년 전 글을 쓴 사람의 숨결이 글을 다리로 하여 건너와 느껴지는 경험을 처음 해 보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척 재미있었다는 것이다. 읽으면 내 피와 살이 되는 고전, 맛있는 고전, 내가 재미를 들인 최초의 고전이 우리의 조상이 쓴 것이라는 데에서 나오는 뿌듯함까지 맛볼 수 있었다.

1. (가)를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녹차를 마시면 소변이 잘 나온다.
- ㉡ 녹차는 깨끗한 피부를 만드는 데 효과가 있다.
- ㉢ 녹차를 마시면 카테킨 성분 때문에 잠이 들기 어렵다.
- ㉣ 녹차는 건강식품이긴 하지만 모두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
- ㉤ 감기 때문에 목이 아플 때 녹차로 입을 행구면 도움이 된다.

☞ 뒷면에 계속

12. 발표하기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 ① 몸동작은 적절한 때에 해야 하고 자연스러워야 한다.
- ② 청중이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글자를 너무 작게 쓰지 않는다. □
- ③ 어떤 순서로 말할지 미리 생각해 두고, 자료는 알맞은 때에 제시한다.
- ④ 발표 자료만 쳐다보지 말고 청중과 눈을 맞추며 부드러운 표정으로 말한다.
- ⑤ 내용에 따라 말의 빠르기, 목소리의 크기와 높낮이 등을 조절하며 말한다. 91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에 내 말이 '있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있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민기지 않아서 있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
먼 훗날 그때에 '있었노라'

(나) 은행나무 열매에서 구린내가 난다
주의해 주세요 ㉠구린내가 향기롭다

밤불이 머물면서 밤송이가 다가워진다
㉡날카롭게 찌르는 가시가 너그럽다

복어알을 먹으면 죽는다
㉢복어의 독이 복어의 사랑이다

자식을 낳고 술을 끊은 친구가 있다
㉣친구의 독한 마음이 아름답다

13. (가)에 주로 쓰인 표현법과 거리가 먼 것은? (4점)

- ① 나 보기가 역겨워/가실 때에는/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7
- ② 썩넌 껌을 아무 데나 댐, 뺄지 못하고/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으로 달려가는/너는 참 바보다. □
- ③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여니/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아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 ④ 바삭바삭한 가는 모래 비랑에/구운 밤 닷 되를 심습니다./그 밤이 움이 돌아 싹이 나야만/떡 있는 입과 이별하고 싶습니다.
- ⑤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최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14. (가)와 <보기>를 비교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점)

<보기>

못 잊어/생각이 나겠지요,
그런 대로/한세상/지내시구려,
사노라면 잊힐 날 있으리다.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그런 대로 세월만/가라시구려,
못 잊어도 터리는 잊히우리다.

그러나 또 한편 이렇지요,
'그리워 살뜰히 못 잊는데,
어쩌면 생각이 떠지나요?'

- ① (가)는 3음보의 운율이, <보기>는 4음보의 운율이 드러난다. X
- ② (가)와 <보기>는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X
- ③ (가)와 <보기>는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91 92
- ④ (가)의 화자는 입을 그리워하는 정서를 보이고, <보기>의 화자는 입을 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 ⑤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술, <보기>는 상대에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X

15.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점)

- ① 일상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없는 소재를 활용했다. X
- ② ㉠~㉣은 독자의 주의를 끌고 참신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 ③ 화자는 소재의 긍정적인 특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 ④ 화자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 술을 끊은 친구의 아름다운 마음을 칭찬하고 있다.
- ⑤ 원래 표현하려는 내용을 실제 의미와는 반대되는 말이나 상황으로 표현하고 있다.

16.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점)

- ① 후각적인 시상 사용
- ② 일정한 글자 수의 반복
- ③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남
- ④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 ⑤ 시의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법 사용

[17-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양반'이란 사족(士族)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정신군에 어떤 양반이 살았다. 양반은 어질고 책 읽기를 좋아해서
고을에 군수가 새로 부임할 때마다 반드시 그 집에 찾아가 인사를
차렸다. 하지만 집이 가난해서 해마다 군(郡)에서 환자를 빌려다가
먹었는데, 몇 해가 지나고 보니 빌린 곡식이 일천 섬에 이르렀다.

☞ 다음 장에 계속

관찰사가 각 고을을 순시하다가 ㉠환자 장부를 살펴보고는 몹시 노하여 말했다.

“어떤 놈의 양반이 관아 곡식을 이치림 축냈단 말이나!”

관찰사는 양반을 옥에 가두도록 명했다. 군수는 양반이 가난해서 빌린 곡식을 갚을 길이 없는 형편임을 딱하게 여겨 차마 가두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리 뾰족한 방법을 찾을 수도 없었다.

㉡양반은 밤낮으로 울기만 할 뿐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그러자 양반의 아내가 나무랐다.

“평생 당신은 책 읽기를 좋아하더니만 환자 갚는 데는 아무 소용도 없구려. 쫓쫓, ㉢양반! 양반은 한 푼이치도 안 되는구려!”

그 마을의 부자가 가족과 상의하며 이렇게 말했다.

“양반은 가난하다 할지라도 늘 존귀하지만, 나는 부자라도 항상 비천해서 감히 말도 탈 수 없고, 양반을 보면 몸을 움츠리고 숨을 죽인 채 설실 기어가 바닥에 엎드려 절해야 하고, 고가 땅에 당도록 없어져 무릎으로 기어야 해.

나는 항상 이런 수모를 겪으며 살아왔어. 지금 양반 하나가 가난해서 환자를 갚지 못하다가 큰 곤욕을 치르게 생겼으니, 필시 양반 신문을 유지하지 못할 듯싶어. 내가 장차 그 양반 신문을 사서 가졌으면 해.”

마침내 양반 집을 찾아가 환자를 대신 갚아 주겠다고 하니 양반은 몹시 기뻐하며 승낙했다. 그러자 부자는 그 자리에서 관아로 환자를 보냈다.

(나) 군수는 다음과 같은 증서를 만들었다.

건릉 10년 9월 모일, 이 증서는 양반 신문을 팔아 관아의 곡식을 갚은 일을 기록한 것으로, 그 값은 일천 섬이다.

양반은 칭호가 많기도 하다. 독서하면 '사(士)'라 하고, 벼슬을 하면 '대부(大夫)'라 하며, 덕이 있으면 '군자(君子)'라 하고, 무신(武臣)은 서쪽에 늘어서고 문신(文臣)은 동쪽에 늘어서므로 이를 '양반(兩班)'이라 하니, 네가 원하는 칭호를 따를지이다.

양반은 비천한 일은 일결 않고, 훌륭한 옛사람과 같이 되기를 바라며 뜻을 고상하게 가져야 한다. 언체나 ㉣오겉이면 일어나 유황에 불을 붙여 등잔불을 켜고는 눈은 코끝을 보고 두 발꿈치는 모아서 엉덩이에 괴고 앉아 《동래박의》를 열음에 박 밀듯 줄줄 외어야 한다. 굶주림을 참고 추위를 견디며 가난하단 소리는 입 밖에 꺼내지 말아야 한다. 이를 딱딱 마주치고, 손가락을 뺨겨 뒷머리를 자극하며, 입속의 침을 모아 몇 번에 나누어 삼켜야 한다. 털모자는 옷소매로 닦아 먼지를 탁탁 털어 윤이 나게 해야 한다. 손을 씻을 때는 주먹으로 마찰하지 말고, 양치질은 깨끗이 해서 입 냄새가 없어야 한다. 소리를 길게 뿜어 노비를 부르고, 걸음은 느릿느릿 걸어야 한다.

《고문진보》며 《당시풍취》를 깨알만 한 글씨로 베껴 한 줄에 백 자씩 써야 한다. ㉤손으로 돈을 만지지 말고 쌀값을 묻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더위도 비선을 벗지 말고, 맨상투로 식사를 해서 안 된다. 밥 먹을 때 국을 먼저 떠먹어서는 안 되고, 마실 때 후루룩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을 때 방아 찧듯이 해서 안 되고, 생과를 먹지 말아야 한다. 술 마실 때 수염을 빨지 말고, 담배 피울 때 불이 움푹 패도록 담배를 빨지 말아야 한다. 노여워도 아내를 때려선 안 되며, 성이 나도 그릇을 발로 차면 안 된다. 아녀자에게 주먹질을 해선 안 되고, 노비들에게 “체져 버려라!”라고 욕을 해선 안 되며, 마소를 꾸짖을 때도 마소를 관 원래 주인을 욕해선 안 된다. 병이 나도 무당을 불러선 안 되고, 제사 지낼 때 중을 불러다 재(齋)를 지내선 안 된다. 화롯불에 손을 쬐

어서는 안 되고, 말할 때 이를 드러내며 침을 튀겨서는 안 된다. 소 잡는 일을 하지 말고, 노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상의 온갖 행실 가운데 양반 신분에 어긋나는 짓을 했을 경우 이 증서를 가지고 관아에 나와서 바로잡도록 한다.

고을 원 경선 군수 (서명)

좌수 (서명)

별감 (서명)

이에 풍인이 여기저기 도장을 찍는데, 그 소리는 북이 뚝뚝 울리는 듯하고, 그 모양은 북두성이 새로로 놓이고 삼성(參星)이 가로로 놓인 듯했다. 호장이 증서를 다 읽고 나자 부자는 한참 명하니 있다가 말했다.

“양반이라는 게 겨우 이것뿐입니까? 저는 양반이 신선과 같다고 들었는데, 양반이라는 게 정말 이뿐이라면 너무 재미없는 일 아닙니까. 저에게 뭔가 이익이 되도록 증서를 고쳐 주십시오.”

(다) 그러자 군수는 증서를 새로 만들었다.

하늘이 백성을 내 사농공상 네 가지 백성이 있는바, 그 넷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사(士)'인데, 이를 일러 '양반'이라 하니 그 이로우이 막대하다.

양반은 농사도 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지만, 글공부 대충 해서 크게 되면 문과(文科) 급제요, 작게 되더라도 진사(進士) 급제다. 문과 ㉥홍패가 이 척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온갖 물건이 구비되어 있으니, 이것이 곧 돈 자루다.

서른 살에 진사 되어 처음 벼슬길에 나설지라도 이름난 ㉦윤관이 될 수 있고, 지위가 높아질 수 있다. 일산 바람에 귀가 희어지고,

㉧설렁줄에 대담하는 아랫것들의 “예이.” 하는 소리에 배가 부어지며, 방에는 단장한 기생의 귀고리가 떨어져 있고, 들에는 학을 길러 그 울음소리를 듣는다.

근궁한 사(士)는 시골에 살아도 제멋대로 횡포를 부릴 수 있다. 이웃집 소를 뺏아다가 제 눈을 먼저 갈고, 백성들을 끌어다가 제 발김을 매게 한들 누가 감히 대들소냐? 코에다가 잣물을 들이붓고, 머리끄덩이를 돌리며 귀밀머리를 뺨은들 감히 원망할 자 없을지이다.

(라) 증서를 작성하는 중간에 부자가 혀를 내두르며 말했다.

㉡“그만두세요. 그만둬! 뻔뻔하기도 합니다! 장차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셈입니까?”

부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가더니 죽을 때까지 다시는 양반이 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17. ㉠~㉥의 뜻을 풀이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 ① ㉠ : 조선 시대에, 각 고을에서 봄에 백성들에게 곡식을 꾸어 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 거두던 일. 또는 그 곡식.
- ② ㉡ : 새벽 세 시에서 다섯 시 사이
- ③ ㉢ : 문과 급제자에게 주던 합격 증서
- ④ ㉣ :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어던 벼슬
- ⑤ ㉤ : 처마 끝 같은 곳에 달아 놓은 망울을 울릴 때 잡아당기는 줄로써 사람을 부를 때 쓴다.

☞ 뒷면에 계속

18.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점)

- ㉠ ㉠에서 환자 깊은 방법을 고민하는 양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 ㉡에서 양반의 아내는 양반의 경제적 가치가 낮은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 ㉢ ㉢에서 돈과 관련된 것을 천하게 여겼던 양반들의 인식을 알 수 있다.
- ㉣ (나)에서 부당한 특권을 행사하는 양반의 부도덕한 모습을 알 수 있다.
- ㉤ (다)에서 허례허식에 얽매어 있는 양반의 모습을 알 수 있다.

19. (나)의 내용과 어울리는 속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양반은 죽어도 문자 쓴다.
- ㉡ 양반은 냉수 마시고도 이를 쐬신다.
- ㉢ 양반은 물에 빠지도 개해업은 안 한다.
- ㉣ 양반은 새끼만 굶으면 된장 맛 보잔다.
- ㉤ 양반은 얼어 죽을지언정 결불은 안 켜다.

2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부자의 말로 인해 독자에게 웃음을 유발한다.
- ㉡ 부자가 양반이 되기를 포기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 ㉢ 양반의 실체를 안 부자의 실망감과 허망함이 드러난다.
- ㉣ 양반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의식이 단적으로 나타난다.
- ㉤ 양반 신분을 사려는 부자를 비하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21. 뒷글의 시대적 배경과 작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농업 기술과 상업적 농업의 발전으로 농민 중 일부가 부농이 되었다.
- ㉡ 조선 후기 모든 양반은 토지와 관직을 독점하고 부와 권력을 누리며 살았다.
- ㉢ 작가는 양반 계층과 당대 현실을 비판하는 내용의 한문 단편 소설을 많이 썼다.
- ㉣ 작가는 조선 후기 실학자이자 북학파의 우두머리로서 청나라의 문물을 적극 받아들일 것을 주장했다.
- ㉤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국가는 공명첩과 납속첩을 통해 신분을 매매하여 재정을 충당하고자 하였다.

22. 대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뒷글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4점)

- ㉠ 강산 좋은 경치를 힘 켜 이가 다들 양이면/내 힘과 내 분수로 어떻게 얻겠는가/진실로 막을 사람이 없으니 나도 두고 노니 노라.
- ㉡ 양반 나오신다야!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육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관서를 다 지낸 퇴로 재상으로 개신 양반인 줄 아지 마시오. 개갈랑이라는 '양'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자를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 "자 보아라, 거리거리 순사요, 끝끝마다 공명한 청사,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어……. 남은 수십만 명 동병을 해서, 우리 조선놈 보호하여 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어? 응응? 제 것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 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구 하는 것이여, 태평천하!"

㉣ "덕들아 농난짓 사오. 저 장수야, 내 물건 그 무엇이라 외치느냐, 사자. 외골내육(外骨內肉) 양목(兩目)이 상천(上天), 진행 후행(前行後行) 소(小)아리 팔족(八足) 대(大)아리 이족(二足) 푸른 장이 아사사 하는 농난짓 사오. 장수야 너무 거북하게 외치지 말고 개짓이라 하리무나."

㉤ "아니 글썽, 나라가 있으면 백성한테 무얼 좀 고마운 노릇을 해 주어야 백성두 나라를 믿구, 나라에다 마음을 붙이구 살지. 독립이 됐다면서 고작 그래, 백성이 차지할 땅 뺏어서 팔아먹는 게 나라 명색야?" 그리고는 튀고 일어서면서 혼잣말로, "독립 됐다구 했을 제, 내, 만세 안 부르기 잘했지."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슬기야, 잘 지내니?

내가 전학 간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아주 오랫동안 못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어, ㉠환세가 망았간을 그지 지나치지 않듯이 우리는 하룻길에 늘 떡볶이 가게에 들렀었잖아. 그 가게 앞을 나 혼자 지날 때마다 ㉡'참외'가 된 것 같아, 니 없이 나 혼자라 참 외롭거든.

순직히 내가 이사 간다는 말을 처음 했을 때에도, 종래 시간에 마지막 인사를 했을 때에도 나는 내가 전학을 간다는 것이 사실인가 싶었어.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학교 가자는 너의 문자가 오지 않았을 때, 나와 함께 다닐 수 없다는 게 그제야 실감 하면서 너무 심심하고 속상하더라.

만 친구들도 모두 너를 그리워해, 큰 목소리로 응원 구호를 외치며 축구를 하던 내가 없으니 만 대항 축구 경기도 ㉢김빠진 탄산음료 같다고 하더라. 진행을 맡았던 내가 없어서일까? 만에서 생일 축하 행사를 해도 예전만큼 재미있지는 않아. '홍 부자'라고 불렀던 내가 얼마나 유쾌하고 재미있는 친구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 진심이야. ㉣비행기 태우려고 하는 말이 아닌 거 알지?

내 소중한 친구야, 내가 전학을 가고 나니 수영장에 같이 다닐 수도 없고 학교 축제 때 함께 공연을 할 수도 없게 되어 너무 슬프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번 여름 방학에 내가 너의 집에 놀러 가는 것을 엄마가 허락하셨다는 거야. ㉤"한 시간의 대화가 오십 통의 편지보다 훨씬 낫다."라는 말도 있듯이 나와 빨리 만나 얼굴을 보며 수다 떨고 싶다. 일론 여름 방학이 되었으면 좋겠어.

보고 싶다, 친구야.

(나) 유주야, 내가 편지를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편지가 오기를 ㉠물시 애타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고 편지를 읽자마자 이렇게 답장을 쓴다. 잘 지내고 있지?

나도 너에게 편지로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 너도 언제나 내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줬잖아. 내가 너 다쳤을 때 도와줬던 건 내가 도와준 일에 비하면 ㉢아주 하찮은 일이지.

여름 방학에 내가 우리 집에 올 수 있다니 "뱃이 멀리서 찾아 주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말이 떠올랐어. 그때 만나 우리만의 추억을 만들어 보자. 건강히 잘 지내고 또 연락하자.

☞ 다음 장에 계속

